

동명대 건축학과 학생팀,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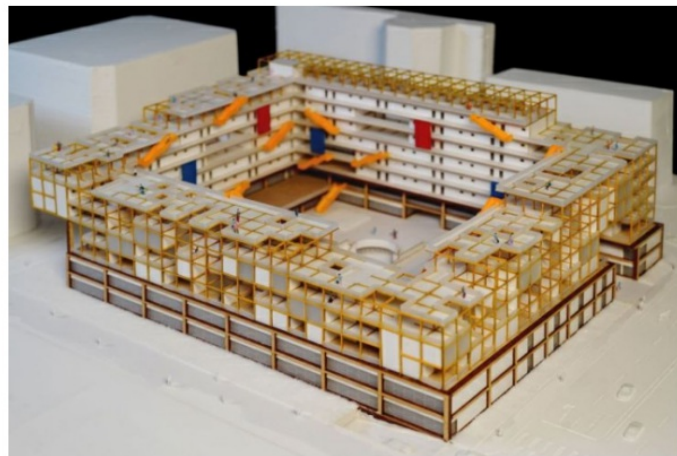
[황두열]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이민태, 김도영 학생팀이 지난 20일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의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Community Care Housing 육아 친화형 복합 주거'라는 주제로 진행돼 '교류와 소통이 살아나는 주거로 함께 살기', '아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함께 돌보기', '공동주택에 커뮤니티를 복원해 함께 성장하기' 등의 아이디어를 요구했다.

이에 학생들은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과 상황에 맞게 해체, 조립, 이동이 가능한 모듈로 가변적인 공간을 제시했다.

주거단지는 인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할 수 있게 구성했으며 육아 시설로는 단지 중앙에 선큰(sunken)형 유치원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아이와 시각적 소통이 일어나도록 했다. 또 커뮤니티를 위해 복도와 엘리베이터 사이에 공간을 뒀 자연스럽게 소통을 유도했다.



동명대 건축학과 이민태, 김도영 학생팀의 출품작.

이민태, 김도영 학생은 "이번 공모전 목표인 함께 돌보고 키워 저출산 사회를 대응하자는 개념적 요구에 자신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반영·발전돼 정부의 주택정책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최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우수상 이상을 수상받으면 국내·외 건축기행과 본 기관에 입사 시 서류전형 면제와 가산점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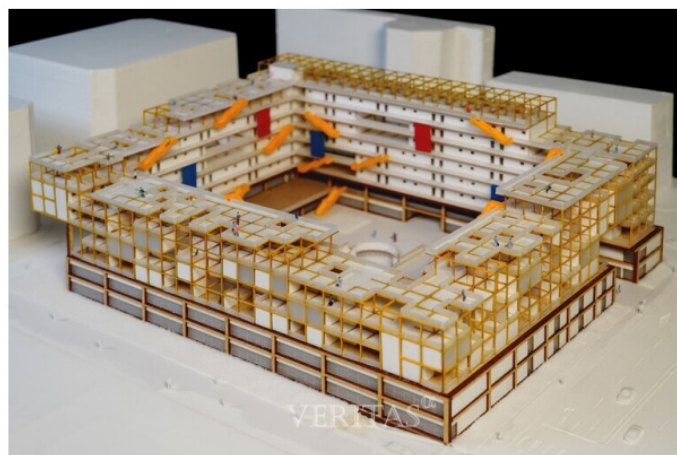
동명대 건축학과 학생팀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우수상 수상

[정우식]

[베리타스알파=정우식 기자] 동명대는 건축학과 3학년 이민태, 김도영 학생팀이 'Community Care Housing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라는 주제로 한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의 공모전에서 20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공모전 주제는 '교류와 소통이 살아나는 주거로 함께 살기', '아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함께 돌보기', '공동주택에 커뮤니티를 복원해 함께 성장하기' 등의 아이디어를 요구했다. 이에 학생들은 수상작을 통해 가족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 공간의 필요도가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 해체, 조립, 이동이 가능한 모듈을 제공하여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을 제시해 주거단지에 인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하게 했고, 육아 시설은 단지 중앙에 선크형 유치원을 구성하고 활용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아이와 마주하여 시각적 소통이 일어나도록 했다. 커뮤니티는 복도와 엘리베이터 사이에 열린 공간을 두어 소통이 일어나도록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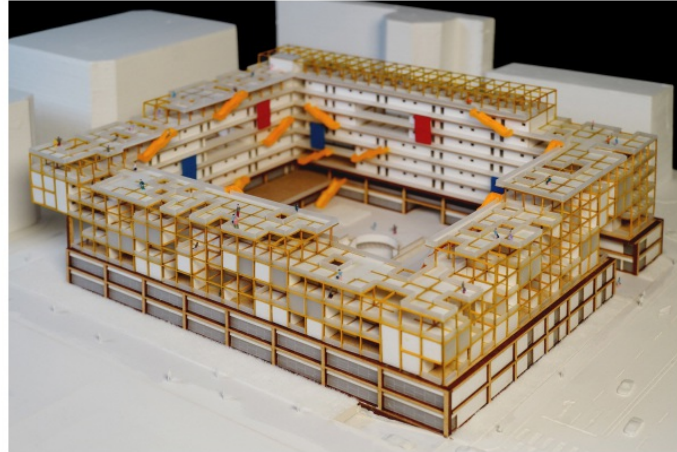
이들은 "이번 공동주택 공모전의 목표가 저출생 사회에 대응해 함께 돌보고 키우는 개념적 요구에 자신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반영/발전돼 정부의 주택정책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최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우수상 이상을 수상받으면 국내외 건축기행과 본 기관에 입사 시 서류전형 면제와 가산점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동명대 건축학과 3학년 이민태, 김도영 학생팀이 'Community Care Housing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라는 주제로 한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의 공모전에서 20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동명대 제공

동명대 건축학과 학생팀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우수상 수상

[허시연]



동명대학교(총장 전호환) 건축학과는 건축학과 3학년 이민태, 김도영 학생팀이 'Community Care Housing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라는 주제로 한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의 공모전에서, 지난 9월 20일(수)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 주제는 '교류와 소통이 살아나는 주거로 함께 살기', '아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함께 돌보기', '공동주택에 커뮤니티를 복원해 함께 성장하기' 등의 아이디어를 요구했다. 이에 학생들은 수상작을 통해 가족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 공간의 필요도가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 해체, 조립, 이동이 가능한 모듈을 제공하여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을 제시해 주거단지에 인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하게 하였고, 육아 시설은 단지 중앙에 선큰형 유치원을 구성하고 활용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아이와 마주하여 시각적 소통이 일어나도록 했다. 커뮤니티는 복도와 엘리베이터 사이에 열린 공간을 두어 소통이 일어나도록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공동주택 공모전의 목표가 저출생 사회에 대응해 함께 돌보고 키우는 개념적 요구에 자신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반영·발전되어 정부의 주택정책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최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우수상 이상을 수상받으면 국내외 건축기행과 본 기관에 입사 시 서류전형 면제와 가산점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